



넥슨
“전 세계 인정받는
기업 될 것”
L2



Life

삼성전자
어린이 위한
갤럭시 체험관 오픈
L4



직구 안전성검사, 온라인몰 등급제 서울시, ‘공정거래’로 활력 올린다

해외직구 제품 선별, 안전성 검사
전자상거래·공정거래 상담센터 운영
사기 사이트 적발, 온라인 모니터링

서울시가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공정 경제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올해 해외 직구 상품 안전성 검사와 전자상거래센터·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강화했다.

시는 외국계 온라인 쇼핑몰 직구 비중이 늘면서 소비자 불만 건수가 증가하자 해외 플랫폼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시행했다.

시가 안전성 검사를 의뢰한 768개 제품 중 90개(12%) 제품에서 유해성이 확인됐다. 슬라임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머리띠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비치볼에서는 납과 카드뮴 등이 검출됐다. 시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 유해성이 발견된 물품의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

시는 “어린이 제품, 위생용품 등의 판매량과 계절 수요를 고려해 검사 품목을 선정했다”며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격주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자 금년 8억9700만원을 들여 전자상거래센터와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운영했다.

올 8월까지 진행한 소비자 상담 4892건 가운데 2970건에 대한 피해 구제를 완료했다. 구제율은 60.7%이며,

▲환불·배상 2468건 ▲계약이행 288건 ▲합의 182건 ▲교환·수리 32건 순이었다. 전년 대비 상담 건수는 15.6%, 피해 구제 건수는 41% 증가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또 시는 시장 감시 활동을 펼쳐 사기 사이트 31개를 적발하고 피해 다발 업체 7곳을 공개했으며, 소비자 피해 주의보 2건을 발령했다. 주요 사례로는 광고 없는 유튜브 계정 공유 사기 주의, 온라인몰 부업 사기 주의 등이 있었다.

아울러 시는 전자상거래업체 12만 9922곳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영업 중인 업체를 모니터링하고, 소비자보호 관련 5개 분야(사업자 정보 표시, 청약 철회, 결제 방법, 이용 약관, 개인정보·보안)의 별(★, 우수) 등급을 매겨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여의도 4.6배’ 특별계획구역 추진 속도

서울시, 특별계획구역 정비방안 내놔
용적률·건폐율 등 최대범위로 완화

서울시가 여의도 4.6배 규모 ‘특별계획구역’의 사업 실현성과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비 방안을 내놔다.

‘특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현상 설계 등을 통한 창의적 개발 방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안을 작성하는 데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 결정하는 구역을 의미한다.

지난 2022년 말 기준 서울시 지정·관리 중인 특별계획구역은 총 588개소다. 강남 코엑스, 용산전자상가 일대, 잠실경기장 등 대규모 개발이 예상되는 주요 부지를 포함해 약 1400만㎡ 규모다.

시 관계자는 “현재 지정된 588개소

중 55%인 325곳이 사업 추진이 되지 않고 있으며, 지정 이후 10년 이상 지난 장기 미추진 구역도 전체의 24%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제도 손질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시는 기존 구역 중 10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거나, 개발 목적이 불명확한특별계획구역을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키로 했다.

특별계획구역 지정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지정 후에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최대한 제공한다.

서울시 정책 방향에 맞게 구역을 개발하거나 창의적 계획안을 제안할 경우 용적률과 건폐율, 높이와 용도 기준을 법적 최대 범위로 완화하고 필요한 경우 용도지역 간 변경도 허용할 것이라고 시는 부연했다.

/김현정 기자

고양시,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 156명 채용

내달 7일, 킨텍스서 취업박람회 개최
우수기업 30개사 참여, 현장면접 진행

고양시는 기업과 구직자 간 효율적인 매칭을 위해 오는 11월 7일 킨텍스 6홀에서 ‘2024 고양시 중장년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경기도 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북부사무소와 고용노동부 고양고용노동지청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중장년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일자리기관들이 총출동해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는 △채용관 △특강관 △취업준비관 △내일설계관 △인사담당자 커뮤니티 △부대체력관 등 다양한 구역으로 구성됐다.

채용관에는 고양시 우수 기업 30개사가 참여하여, 간호조무사, 경리, 물류사무, 사회복지사, MD, 직업상담사, 조리사 등 여러 직종에서 156명을 채용하기 위한 현장 면접이 진행된다. 국립암센터, 이케아, 에프씨웍스도 기업 홍보존에서 채용 상담을 진행하며, 헤드헌팅 기업과 전직지원 상담 부스는 경력직 및 전문 인력의 이직·전직을 돕는다.

취업준비관에서는 취업 컨설팅과 AI 면접 컨설팅, 직업심리검사를 통해 구직자 맞춤형 진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심층 상담이 필요한 구직자는 내일설계관에서 구체적인 일자리 탐색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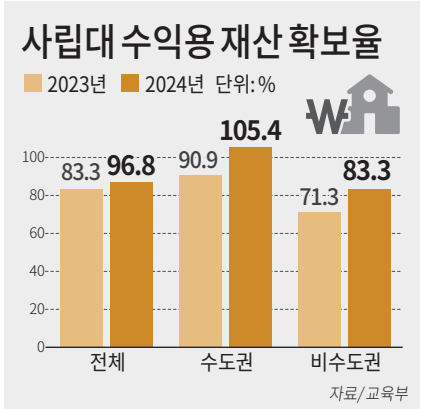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대학 60% “기숙사비 현금 일시불만 받아요”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결과 공개
사립대 수익용 재산 확보율 96.8%
카드납부 가능한 기숙사 20%에 불과

지난해 관련법 개정으로 대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부담이 완화되면서, 올해 사립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96.8%로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가운데, 기숙사 10곳 중 6곳이 기숙사비를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회의는 30일 4년제 일반대·교육대 193곳의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이 같이 공개했다.



사립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96.8%로 전년(83.3%)보다 13.5%p 증가했다. 지난해 9월 ‘대학설립·운영 규정’이 개정되면서 대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부담이 완화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중 수도권 대학은 105.4%로 전년(90.9%)보다 14.5%p, 비수도권 대학은 83.3%로 전년(71.3%)보다 12.0%p 증가했다.

지난해 사립대 법인의 사학연금(퇴직수당 포함),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등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3.1%로, 전년보다 1.9%p 증가했다.

대학 기숙사 59.9%인 151곳은 현금으로만 기숙사비를 일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의 총 252개 기숙사를 대상으로 기숙사비 납부 현황(중복 가능)을 조사한 결과다.

카드 납부가 가능한 기숙사는 51곳(20.2%)에 그쳤고, 현금 분할 납부가 가능한 기숙사는 78곳(31%)이었다.

/이현진 기자 lhj@

서울시, 난임시술비 ‘출산 당 25회’로 확대

평생 25회서 확대… 본인 부담금도↓

서울시는 출산을 간절히 원하는 부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 ‘난임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시는 기존에 ‘난임부부 당’ 생애 총 25회로 제한했던 시술 지원을 앞으로는 ‘출산 당’ 25회로 늘리기로 했다. 예컨대 난임시술로 첫 아이를 가지

면서 최대 지원 횟수(25회)를 모두 썼다고 하더라도 둘째, 셋째를 갖고자 할 때 아이마다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45세 이상은 절반, 44세 이하는 30%로 차등 부담해 왔던 ‘건강보험 급여 본인 부담금’도 이제 연령 관계없이 모두 30%만 본인이 내면 된다.

/김현정 기자



▲‘부상 결장’ 잦아진 손흥민…맨시티 전도 뒤통나
▲‘MLB 단일 시즌 최다 121패’ 42세 베나볼 감독 선임

/사진 뉴시스

▲‘오타니 효과’ 일본 월드시리즈 시청자 1515만명 육박
▲‘4년만 이혼’ 김민재, “양육비 월 1000만원 넘을듯”



▲유해란 등 출격…LPGA 토토 저팬 클래식 31일 개막
▲국립중앙박물관장, 수장고 누수 사과…“재발 방지 만전”

/사진 뉴시스

버스타비 **Yap**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